■ 광주시향 루드비히 연임 포기

갈등 봉합…"단원들도 뼈아픈 반성해야"

일부 안일한 연습 행태 등 비판…부지휘자 체제

조정위, 3개월내 오디션 제도 등 개선책 주문

단원들의 상임지휘자 연임 반대로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립교향악단 문제는 당사자인 크리스티안 루드비히가 24일 재계약을 포기하면서 일단 봉합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단원들과 노조의 반대로 지휘자가 낙마하는 선례를 남겨 자칫 앞으로 지휘자를 영입하는 데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향악단 뿐 아니라 시립예술단체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중장기 발전 방안등을 마련, 시립예술단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당초 잠복해 있던 루드비히 연임 문제는 상임지휘자의 근무 평정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단원들이 승소하면서 표면으로 떠올랐다.

단원들은 이후 ▲루드비히 취임 후 교향악단 연주의 질적 하락 ▲동생(첼리스트), 여자친구(성악가)를 협연자로 세우는 등 도덕적 자질 문제 ▲정기평정에 대한 재판결과 ▲단원 설문 결과(연임 반대 76%, 잘 모르겠다 18%, 찬성 5%) 등을 제시하며 연임 불가를 주장해왔었다.

이후 조정위원회가 가동되며 연임과 관련한 조정안을 모색했으며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마지막 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24일 루드비히가 전격적으로 연임 포기를 밝히면서 사태가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루드비히는 이날 시에 제출한 연임 계약 포기 발표문에서 일부 단원들의 행태에 대해 "기본적인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누구도 지휘자로 일할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문제가 됐던 오디션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들이 일부 단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다"며 "오디션 목적은 단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프로페셔널한 단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능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단원들이 지휘자와 다함께 연습하는 시간은 30시간이 채 못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는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부 단원들의 연습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지역 음악계에서도 일부 단원들의 연주 실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있어온 점을 감안하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이날 조정위는 제도적 개선과 관련한 제안을 광주시에 전달했다.

조정위원들은 민·관·시의회·단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립교향악단 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지휘자 선임과 연임, 단원 오디션 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고, 기간은 3개월 내로 못박았다.

일단 시는 신임 지휘자 선임을 서두르지 않고 최근 임용한 부지휘자와 객원지휘자 체제로 운영하며 단체를 정비한 후 차분히 지휘자를 물색한다는 생각이다.

오는 2월 28일로 임기를 마치는 루드비히는 오는 31일 지휘봉을 잡으며 마지막 연주회는 2월 중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립교향악단 관계자는 "시민들중에는 저희들을 응원한 분들도 있지만 지휘자를 응원했던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단원들도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 좋은 연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지휘자의 결단으로 문제가 풀리기는 했지만 단원들도 뼈아픈 반성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지휘자 길들이기,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실력연마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24일 오디션이 불공정했다는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광주시는 "적법한 행정절차였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휘자 연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립교향악단 사태는 24일 당사자인 크리스티안 루드비히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봉합됐다.

광주 방문 한국미술협회 조강훈 신임 이사장

"광주 곳곳 예술 입혀 예향 명성 되찾게 할것"

순천 출신의 조강훈(53) 한국미술협회 신임 이사장은 예향 광주를 '서양미술 보급의 중심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광주가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4일 광주를 찾은 조 이사장을 광주시 동구 한국미협 광주지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그는 다음달 20일 취임을 앞두고 전국 15개 시도지회 중 가장 먼저 광주를 방문했다.

조 이사장은 "광주 예술의 거리를 돌아보면서 지역 예술계가 많이 쇠락한 것을 단적으로 느꼈다"며 "한국미협과 광주지회가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 작가들이 직접 조성하는 새로운 예술의 거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예향과 민주화의 도시 광주의 상징성이 잘 부각된 장소를 선정해 예술을 입히겠다는 구상이다.

보도블록, 가로등, 담벼락 하나하나에 작가들이 직접 디자인을 새기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예술의 거리가 조성되면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광주를 방문한 외지 관광객들이 꼭 가고 싶은 장소, 1번지가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작가들에게 중앙 무대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도 전했다.

조 이사장은 "지역 작가들이 최근 예술의 메카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열고 싶어하지만 대관료와 체류비용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며 "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갤러리와 게스트 하우스를 만들어 지역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사랑방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후배들이 중앙 무대보다 세계를 향한 창작열을 불태우기를 바랐다. 중앙과 지역의 경계가 점차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추구하면 국내에서 반짝하는 작가가 아니라 세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조 이사장은 "협회가 주관하는 국제아트페어를 신설하고 작품 담보 미술 은행제를 도입해 창작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미협 이미지에서 탈피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협회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조 이사장은 다음달 20일 서울 용산아트홀에서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4년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립도서관 다독가족 선정

광주시립도서관이 책을 많이 읽는 다독(多讀) 가족을 선정한다.

시립도서관은 24일 "시민들의 독서의욕을 높이고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빛고을 책 읽는 가족'을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광주시내 공공도서관(17개관)의 도서대출 가족회원이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이용실적(도서대출 등)을 집계해 6가족을 선정한다. 선정 가족에는 광주시장 명의 인증서와 현판을 제공한다.

김삼철 시립도서관장은 "독서는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습관이 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가족독서운동 캠페인이 시민들이 활발하게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13-7710.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예술, 그 시작은 어디일까

양경모전 내달 4일까지 롯데갤러리

서양화가 양경모씨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롯데갤러리에서 '그림고백'을 주제로 첫 개인전을 갖는다.

양씨는 이번 전시에서 붓과 물감으로 그려낸 회화와 함께 CD와 같은 일상적인 오브제를 이용한 입체작품 등 모두 4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들에서 작가는 '예술의 첫 근원은 어디인가'라는 물음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 창작활동 중 시력약화로 망막박리의 아픔을 견뎌내야 했을 작가의 인내와 그리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절실했는지가 느껴진다.

양씨는 "순수본질에 충실해 담백한 그림의 맛을 내는 순수예술가가 되기를 꿈꾼다"고 말한다.

CD 오브제 연작

첨단을 달리는 현대미술의 다양한 표현방식 안에서 그의 작업은 단순하기만 하다. 하지만 원색 사용과 조화로운 화면 구성에서 어린아이 같은 작가의 순수한 작품 세계가 투영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물길, 아! 광주천

현대사진작가협 사진집 발간

(사)한국현대사진가협회가 지난 1년간 광주천을 테마로 일상과 시민, 사계, 생태계를 기록한 사진을 모아 '광주천-사진으로 바라본 여정(旅情)'을 발간했다.

회원들이 지난해 처음으로 도시기획사진전 '도시를 말하다, 광주 2012-물길, 아! 광주천'을 진행하면 기록한 사진들을 엮었다.

무등산 장불재 샘골에서 발원해 영산강으로 합류하는 광주천의 60리 물길 속에 비친 도시의 문화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사진과 함께 광주천에 대한 아마추어 작가 개개인의 생각을 기록한 짤막한 글이 인상적이다.

한편 (사)한국현대사진가협회는 전남대, 광주대, 호남대 등 평생교육원에서 사진교육을 받은 시민들이 모여 지난해 1월 발족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